*영어어문교육 13*권 3호 2007년 가을

영어 시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

강 문 구
(온양고등학교)

Kang, Mun-koo. (2007). An effective strategy on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tense in the EFL edu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13*(3), 133-156.

Although the understanding of English tense system is a crucial factor for communicative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for EFL students, it has been neglected over the years. As with other areas of the grammar, difficulties may arise from the nature of the system itself or from differences between time, tense and aspect. Consequently, many learners face a considerable difficulty with the English tense system as they are more often unable to grasp the basic conceptual differences of present/present continuous, past/present perfect, will/be going to along with many others. More concerning fact is that lots of instructors or so-called native English teachers seem not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eaching English tens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examine various theories and practical usages of tense in order to establish and/or present better methods for teaching tenses. This paper is focused on comparatively exact distinction of time, physical notion from tense, grammatical category as well as sequences of tenses in view of school grammar and communicative function. At the end or middle of each chapter,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techniques or strategies on tenses are suggested to help instructors or learners who relentlessly face confusions in understanding tense and its usage for communicative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This study attempts to influence learners' ability to recognize and write tense in authentic contexts not to mention spoken English.

[tense system/theories and usages of tense/differences between time and tense/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on tenses, 시제 체제/시제의 이론과 용법/시제와 시간의 차이/시제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책략]

I. 연구의 필요성

영어교수·학습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어 듣기와 말하기지도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정확성과 유창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원인이 '학교문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제나 상(aspect)에 대한 교수·학습에서 이론적 체계성

의 부재로 학습자는 물론이고 단위학교 영어교사들이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그 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이론적 배경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동사의 시제가 언어마다 제각기 다르고 용법이나 활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서적이나 잡지를 읽을 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영작표현, 또는 대화 시에 화자의 뜻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시제나 상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바르지 못한 활용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개념인 시간과 언어적 개념인 시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제에는 12시제가 있다거나 미래는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미래를 나타낸다고 믿는 등 아직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 개념 정리나 이론적 배경이 없어 자신이 사용하는 문장에서조차 시제나 상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제는 시간에만 관계되는 일차적, 외형적 개념이고, 상은 시간 개념 외에 시간의 내면적 개념으로, 서법은 화자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삼원론적 원리를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여러 학자들의 영어 시제와 상에 관한 정의와 시제와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음에 시제와 상에 관한 용법과 활용을 예문을 들어 정립해보면서 효율적인 교수·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제와 시간

시간이 물리적 개념인데 반해 시제는 언어 도구로서 ‘시간’을 의미하는 라틴어 ‘tempus’에서 온 말인데 동사나 동사구(verbal forms)를 통해 시간 관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이나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와 같은 문장에서 전자의 서법조동사 would는 과거라는 물리적 시간이 아닌 ‘공손한 부탁(polite request)’을 나타내며, 후자는 소위 가정법으로서 과거시제와는 관계없는 현재 화자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낸다.

Jespersen(1924, p. 257)은 ‘시제’와 시간은 엄격히 분리된 개념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t is important to keep the concepts time and tense strictly apart. The former is common

to all mankind and is independent of language: the latter varies from language to language and is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ime relations, so far as these are indicated in verb forms. In English, however, as well as in many other languages, such forms serve not only for time relations, but also for other purposes: they are also often inextricably confused with marks for person and mood.

즉, 시간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면, 시제는 언어마다 제각기 다르고 동사의 형태로 시간과 연관된 '언어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Quirk, Greenbaum, Leech와 Startvik(1973, p. 40)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보편적이고 비언어적인 개념이며, 시제는 시간의 개념을 동사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ime is a universal, non-linguistic concept with three divisions: past, present, and future: by tense we understand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orm of the verb and our concept of time.

조성식(1974, p. 292)은 시간이란 개념적인 것이며, 보편적이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시제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이기에 언어마다 다르며 이질적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중등학교에서 학습자들이 흔히 여행사 직원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접했을 때 시제와 시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지 영어교사들은 고민하게 된다.

(1) We leave London at 10:00 next Tuesday and arrive in Paris at 13:00. We spend two hours in Paris and leave again at 15:30. We arrive in Rome at 19:00 and spend hours in Rome, etc.
(2) Water consists of oxygen and hydrogen.
(3) I hear that Mr. Lee has gone into hospital.

(1)의 경우는 미래 표시의 부사구와 더불어 앞으로 비행기의 출발이 명확함을 나타내고, (2)의 경우는 불변의 진리를, (3)의 경우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화자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현재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기에 학습자들에게 글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자연적 시간인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실제 언어 표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미상으로도 과거시제가 반드시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를, 현재시제가 현재 시간을, 미래시제가 미래의 시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동사의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는 매우 복잡, 다양하고 동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제와 상의 관계

'상'은 러시아어 'vid'에서 온 것인데 '관점'이나 '보이는 것'이란 뜻으로 화자가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할 때 동사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형, 성격, 또는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가 영어 동사를 접하게 될 때 시간 관계와 동작이나 양태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성식(1974, pp. 301-303)은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에서는 본래 동사는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상이었지만 이후에 점차로 시간 관계를 규정하는 시제 체계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제는 상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은 객관적인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와는 달리 화자가 동작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색채를 띠었는데 어떠한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고 간주할 때에는 이것을 계속상(durative aspect),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단순한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부정과거(aorist), 어떠한 동작의 완료나 결과를 중요시 할 때에는 완료상(perfect aspect), 동작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때는 반복상(iterative aspect)이라고 하였다. 인구어에서는 본시 동사에는 이러한 여러 상만이 표면에 나타나고 시간 관계 표출은 제 2차적인 문제였다. 문명이 발달하고 복잡해져 언어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양상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여러 동사의 상이 동사 시제형 안에 흡수되어 시제 안에서 상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Quirk외 3인(1985, pp. 188-89)의 시제와 상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The Term Aspect refers to a grammatical category which reflects the way in which the verb action is regarded or experienced with respect to time. Unlike tense, aspect is not deictic, in the sense that it is not relative to the time of utterance. For some purposes, the two aspect constructions of English, the perfective and progressive, can be seen as realizing a basic contrast of aspect between the action viewed as complete(perfective), and the action viewed as incomplete, i.e. in progressive(imperfective or progressive).

즉, 상은 화자가 의도하는 동사의 행동이나 상태가 시간과 관련되고 경험되는 방법을 반영하는 문법범주이고, 시제와는 달리 발화시간과는 별 관련이

없어 지시적(deictic)이 아니며,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Comrie(1976, pp. 5-6)는 시제와 상의 구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ense is a deictic category, i.e. locates situation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 Aspect is not concerned with relating the time of the situation to any other time-point, but rather with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the one situation; one could state the difference as one between situation-internal time (aspect) and situation-external time (tense).

즉, 시제는 대개 현재 시점과 관계되는 지시적 범주이고, 상은 한 상황의 내적 시간과 관련하여 내적 시간 구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완료상과 어느 일부로 보는 미완료상으로 구별된다.

(4) John was watching TV when I entered.

위 (4)에서 'I entered'는 내적 시간과는 관계없이 전체로서, 즉 동작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완료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was watching TV'은 'I entered'라는 동작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작의 시작과 끝이 분리되는 내적 시간 구조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제와 상의 또 다른 구별은 다음과 같은 이중성(duality)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6) John was reading.
(7) He moved to a new apartment.
(8) I read the book.

시제형은 객관적, 외형적인 시간 관계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동사 자체가 내포하는 내면적인 의미나 동작의 양태를 표현하게 된다. (5)와 (6)은 각각 현재와 과거시제이지만 동작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이었던 미완료상을 나타내고 있고, (7)과 (8)은 둘 다 과거시제이지만 동작이 완료된 완료상을 나타낸다.

상은 시간과 관계가 있지만 시제처럼 어떤 동작 사건이나 일의 상태가 화자의 발화시점을 중심으로 전후 어느 시점에 일어났느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적인 양태 혹은 동작이나 사건 속의 시간적인 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남기심, 1978, pp. 300-303).

시제를 연구할 때 시간 관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용법, 이를테면 계속(continuation), 습관(habit), 진리(truth), 완료(completion) 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시제가 지니는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 시간 관계는 2차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언어 시제를 타 언어 시제와 직접 비교하게 되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Sweet, 1898, p. 103).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사의 형태와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동사의 내면적인 모습을 전통문법에서는 단순한 시제 표지(tense marker)로 간주하여 시제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적인 요소와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제를 연구하거나 지도할 때는 시간상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와 그 동사가 담고 있는 어휘 특성을 문맥 속에서 교수 · 학습하는 것이 시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3. 시제와 상의 분류

1) Jespersen의 7 시제

Jespersen(1924, p. 263)은 시제의 체계를 설정하고 시간을 보편적으로 한 차원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직선으로 나타냈다.



그에 의하면 시간이란 기준시(point of reference)인 현재를 전후하여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지며 이 무한한 시간을 이분한 각 부분에 아래와 같이 7개의 논리적 범주(logical category)를 설정하고 같은 수의 문법적 범주(grammatical category)를 대응시켜 7개의 시제형식(tense forms)을 설정하고 있다.

표 1
Jespersen의 시제 체계

논리적 시간 (logical time)	문법적 시제 (grammatical tense)	동사 형식 (verb form)
전 과거시 (before-past)	전 과거 시제 (ante-preterit)	had written
과거시 (past)	과거시제 (preterit)	wrote
후 과거시 (after-past)	후 과거 시제 (post-preterit)	was to write
현재시 (present)	현재 시제 (present tense)	write(s)
전 미래시 (before-future)	전 미래 시제 (ante-future)	will(shall) have written
미래시 (future time)	미래 시제 (future tense)	will(shall) write
후 미래시 (after-future)	후 미래 시제 (post-future)	shall/will be going to white

위 표 1의 7개의 시제 형식 중 was to write는 논리적 시간과 관계되는 후과서시에 대응하는 시제 형식인데 일종의 독립된 시제 형태가 아니라 과거시제(preterit)의 일종이며, 후 미래 시제 또한 뚜렷한 하나의 시제가 아니라 미래시제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 할 것 같다. 위 표 1에는 현대 영어에 빈도가 높은 현재완료시제(present perfect tense)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를 Jespersen(1924, p. 26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is, however, is really no defect in the system, for the perfect cannot be fitted into the simple series, because besides the purely temporal element it contains the element of result. It is a present, but a pervasive present: it represents the present state as the outcome of past events, and may therefore be called a retrospective variety and not of the past is seen by the fact that the adverb now can stand with it.

즉, 그의 시제 체계에서 현재완료가 빠진 이유는 그 시제 자체가 현재시제인 동시에 과거시제를 내포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time point)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Jespersen의 시제 체계에는 현재완료, 과거완료, 과거, 현재, 미래, 미래완료의 6가지 시제형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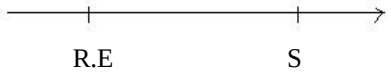
2) Reichenbach의 9 시제 체계

Jespersen이후 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Reichenbach(1947, pp. 288-290)이다. 시제의 시간 결정(time-determination)에서 그는 Jespersen의 시제 체계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시간의 3항구조(three-place structu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제 결정에 정확성을 기하였다.

We see that we need three time points even for the distinction of tense which, in a superficial consideration, seem to concern only two time points. The difficulties which grammar books have in explaining the meanings of the different tenses originate from the fact that they do net recognize the three structures of the time determination given in the tenses (Reichenbach, 1947, p. 288-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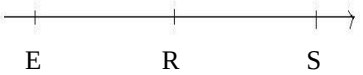
Reichenbach에 의하면 시간 표시(temporal specification)는 세 가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발화시(speech time: ST), 기준시(reference time: RT) 그리고 사건시(event time: ET)가 그것이다. ST는 화자가 문장이 발화되는 시간 즉 발화순간(the moment of utterance)이고, RT는 문장에 의하여 지시되는 시간으로서 ST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ET는 수반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리키는 시간인데 이것은 RT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9) John won the prize last week.



(9)에서 RT와 ET는 일치하지만 ST보다는 앞선다.

(10) John had already won the prize last week.



(10)에서는 ST는 발화 순간이고, RT는 last week이며 ET는 last week보다 앞서는 비특정적 시간(unspecified time)이다.

이와 같이 Reichenbach는 시제 구분을 ST에 관련된 RT의 위치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또 RT에 관련된 ET의 위치에 따라 전시제(anterior tense), 단순시제(simple tense), 후시제(posterior tense)로 나누었다.

즉, ST를 기점으로 하여 RT가 그것보다 먼저인 경우, 또는 동시적인 경우 그리고 후시적인 경우에 따라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용어를 부여하고, RT를

중심으로 ET가 그 이전이거나, 동시적이거나, 혹은 그 이후에 놓일 경우에 대해 각각 전시제, 단순시제, 그리고 후시제의 용어를 붙였다.

Allen(1982, p. 142)이 분석한 Jespersen의 시제 체계와 Reichenbach의 3항구조(three-place structure)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Jespersen 의 Seven T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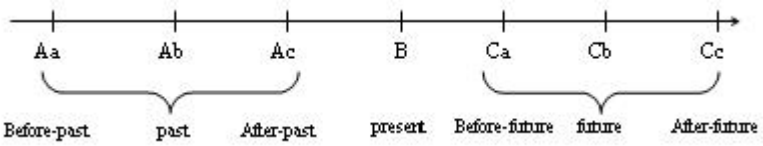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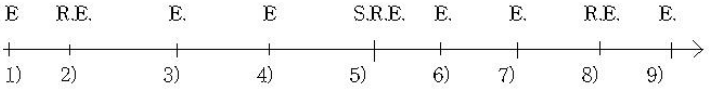


그림 2
Reichenbach 의 9 가지 기본 형태



1) anterior past
2) simple past
3) posterior past
4) anterior past
5) simple present
6) posterior present
7) anterior future
8) simple future
9) posterior future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시제 체계와 Reichenbach가 분류한 시제 체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Reichenbach 의 시제 분류와 전통적인 시제 체계

Structure	Reichenbach	Traditional Name
E - R - S	Anterior past	past perfect
E R - S	simple past	simple past
R - E - S		
R - S E	posterior past	----------
R - S - E		
E - S.R.	Anterior present	present perfect
S.R.E.	simple present	present
S.R. - E.	posterior present	simple future
S - E - R		
S.E. - R	anterior future	future perfect
E - S - R		
S - R.E.	simple future	simple future
S - R- E	posterior future	----------

Reichenbach의 시제 분석은 Jespersen과 Allen에서처럼 영어의 시제형으로 6개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같지만 전체적으로 그들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즉, 시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시제와 시간의 개념에 분명하게 접근했고, 특히 완료형이 전시사건을 후시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일반시제형이 ET와 RT를 동일시한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4. 시제 일치에 관한 화용론적 접근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시제는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영문법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시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시간지시적 기능을 가진 하나의 문법범주로 간주되었다. 전통적으로 학교문법에서 시제의 일치에 대한 규칙으로 주절의 시제가 현재나 미래이면 그에 따르는 종속절에는 상황에 맞는 어떤 시제가 와도 되지만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면 종속절에서는 과거시제가 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시제 일치에 대한 예외나 다음에 논의될 예문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희자(1988)는 영어 시제의 선택조건을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생생한 표현, 정중한 표현, 화자의 지각 능력, 현재시 과거 상황의 실효성, 내용의 진위에 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 개인 관계, 정보의 종류, 표현 내적 행동 등 8가지를 제시하면서 시제 선택의 주관적인 조건들 이외에 객관적인 시간 지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재시나 과거시제가 나타내 주는 개념들, 이를테면 현재시제에 의한 근접성, 즉시성, 확실성, 직접성과 과거시제에 의한 거리감, 완결성, 일시성, 간접성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Costa(1972)도 시제 선택의 조건으로 사실성(factivity)을, Kiparsky & Kiparsky(1971, p. 359)도 주절동사(Embedding Verb: EV)가 factive predicate이면 보문의 시제 선택은 다분히 임의적이고, non-factive predicate이면 의무적이라고 했다.

(11) John claimed that the earth was/*is flat.
(12) John grasped that the earth was/is flat.

그러나 오히려 보문의 시제 선택은 보문을 화자가 전제된 상황이나 습관으로 받아들이면서 화자의 지각 및 문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13)과 같은 문장은

(13) He said that English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a world language.

"영어가 세계어로서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 는 사실을 진리에 근접

된, 그 시대의 절대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다음 (14)과 같은 부류로 생각되고 있다.

(14) He said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그러므로 다음 (15)와 같은 문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문(ungrammatical)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15) He said that English wa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a world language.

그러나 (15)는 비문이 아니라 화자가 지닌 관점의 차이나 문맥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오류에서 오는 것이니만큼 학생들의 고정된 시제에 관한 편견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바로잡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16) Marmaduke was convinced that he was/is of royal blood.

주절이 과거라고 해서 종속절은 반드시 과거로 할 필요는 없다. was일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is)는 하나의 과거 사실(he is of royal blood)을 현재까지 지속되는 진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보아 현재시제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것은 발화시의 사실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mith(1978)와 Costa(1972)도 동일한 의견을 나타낸다.

(17) The Egyptians knew that the earth is round.
(18) John told me that Mary is leaving next week.
(19) I heard last night that Simon is sick.

(17) - (19)에서 정확한 해석은 화자가 그 보문의 ST에 사실이거나 타당한 경우로서, 언급된 똑같은 사건이나 상태가 주절이나 ST에 언급된 시간에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19)는 Simon이 지난 밤에 아팠고, 현재에도 아프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앞으로 아플 것인지의 여부는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동사(factive verb)나 언급동사(verbs of saying)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예문에서는 분명히 어색하다.

(20) Mary feared that Bill *is sick.
(21) The family thought that the money *is safe.

같은 맥락에서 다음 (22)와 (23)을 살펴보기로 하자.

(22) Mary said that her ex-husband was a severe alcoholic, and that is why she divorced him.
(23) Mary said that her ex-husband is severe alcoholic, and she really worries when he has the kids.

(22)은 과거 어느 시점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23)은 화자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를 사용하고 있다.

(24) John said that he went to the circus two weeks ago.
(25) John said (when I met him, which was a week ago) that he had been to the circus a week ago.

(25)에서 보문은 발화시 과거보다 앞선 시제인데 발화 시간과의 유일한 관계는 간접적으로 EV(embedding verbs) 과거시제의 SOT(sequence of tense) 부사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24)에서 보문은 EV인 said와 관계없이 발화시와 직접적인 시간 관계에 있다. 이러한 시제의 선택은 보문의 내용이 발화시간에도 여전히 사실인 상황을 기술할 때도 적용 되는데, 그런 경우에 SOT는 EV의 어떤 형태와 더불어 수의적이며, 화자는 현재시 또는 과거시 보문을 선택할 수 있다. (26)과 (27)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26) John didn't realize that you had/have to declare that you were/are not a communist to get a US visa.
(27) It never occurred to Dante that the earth revolved/revolves around the sun.

그러나 이러한 변이는 임의적인 것은 아니며, 현재형과 과거형을 사용했을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화자 및 문맥에 의해 명백해진다. 결정적인 요인은 전제된 관련성의 개념으로서 화자가 그 보문의 의미가 그가 관여하고 있는 대화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EV가 임의적 SOT를 허용하는 계층에 속한다면 현재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28)의 질문에 대한 응답 (29)를 살펴보자.

(28) Did Sarah have any ideas about what might be wrong with my marriage?
(29) Well, she mentioned that married couple often discover/*discovered that they wrongly think/*thought that their sex-life is/*was perfect.

(29)에는 현재시제 보문이 적합하며 과거시제를 사용하면 과거시제에 확실하게 고정된 어떤 시점에 관련되어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다. 시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문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동사의 사실성을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고 있는데 Kiparsky & Kiparsky나 Costa도 임의적인 SOT를 결정짓는 것은 동사에 포함된 사실성이라고 보고 두 가지 동사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Kiparsky & Kiparsky와 Costa의 사실성 동사 유형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Kiparsky & Kiparsky와 Costa의 Factive Verbs

Factive-verb	Non-factive Verb
regret, be aware, grasp comprehend, consider bear in mind, ignore make clear, mind forget deplore, resent, mention, care about, realize, discover show, notice, was concerned, say, report, etc.	suppose, assert, allege, assume, claim, charge maintain, believe, conclude, conjecture, intimate, deem, fancy, figure, think, imagine dream, wish, hope, etc.

즉 사실동사는 현재가 보존되는 허용하는 임의적 동사이고, 비사실 동사는 의무적인SOT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로 Costa나 Kiparsky의 사실성 동사 구분이 보문시제 선택의 전제조건이 될지는 모르나, 오히려 전제와 문맥에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30)과 (31)을 보자.

(30) The Indian philosophers recognized the fact that the world was round, but were more interested in the abstract ground of its being, Brakaman.
(31) How could you really expect John, a member of that crazy Flat-Earth Society,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world is round?

(30)에서 화자는 과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반면에, (31)은 화자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화자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다.

(32) John said that his car was/is out of oil.

(32)에서 현재시제가 사용된 것은 화자가(John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고,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33)의 경우는 say라는 사실성 동사가 쓰였으면서도 문맥에 의해 과거시제가 더 적합하다.

(33) Look, the dip-stick shows oil right up to the full mark.
But John said that his car *is/was out of oil.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자가 분명히 거짓인 것으로 보는 제안이나 명제에

는 반드시 의무적인 SOT를 취한다는 것이다. (33)에서 현재시제를 쓰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이것은 Kiparsky & Kiparsky의 사실성, 정희자(1988)의 전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화자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Quirk et al.(1985, p. 1026)도 간접화법에서의 명제가 거짓인 것으로 생각된다면 backshift가 생긴다며 (34)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34) The ancient thought that the sun moved around the earth, but from the time of Galileo it was known that the reverse is true.

이상과 같은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SOT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명사절인 경우로서 우리가 학교문법에서 가르치는 SOT의 예외적인 사항들도 무조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화자의 입장과 문맥에 따라서 선택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35)와 (36), (37)은 대조적이다.

(35) I could not tell whether he laughed inwardly or not.
(36) American naval captain ... declared that 'blood was thicker than water,' and that he could not look oneself with vague immensities.
(37) He spoke often in parables which illustrated the point that life was a perpetual confrontation of oneself with vague immensities.

(35)는 일반적인 시제 적용의 결과이나, (36)과 (37)은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보문이 화자의 입장에서 주절의 동사에 타성적으로 일치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는 절속의 시제가 주절의 EV와는 상관 없이 화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이다.

(38) Tom answered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n in 1492.
(39) I used to ask how much coffee cost before 1914.
(40) You didn't believe what he told you about winning the lottery.

결론적으로 시제의 일치란 복문에서 주절 동사와 보문 동사간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절 동사가 현재나 미래시제형인 경우 외에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사이에 일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상대 시제적인 개념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에서 가르치는 시제 일치 현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보문에 대한 화자의 입장, 그리고 보문에서의 사실성과 문맥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는 절대시제의 개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제를 가르칠 때는 고정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맥과 화자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III. 시제 지도 방안

1. 시제의 정의

시제는 동사나 동사구 형태로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영어 시제라는 문법 범주의 정의와 시제가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는 시제 표현 속에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상 위치뿐만 아니라 그 동작이나 상태의 양상과 관련된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Poutsma(1926, p. 205)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시제는 행동이나 상태가 속한 시간 영역을 나타내주는 동사나 동사구의 형태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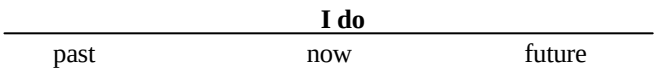
By tense we understand a particular form of a verb, or a verb group, by means of which we show to what time-sphere an action or state is considered to belong. We distinguish three main time-spheres: the present, the past, and the future.

Curme(1931, p. 354)은 영어에는 원래 현재와 과거 두 시제만 있다고 보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6개 시제형은 동사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절대시제(현재, 과거, 현재완료, 미래) 4개와 상대시제(과거완료, 미래완료) 2개를 인정하였는데, 절대시제는 다른 행동을 참조함이 없이 화자의 발화 시점에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고 상대시제는 절대시제에 관계되어 상대적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완료형은 시제 범주에 포함시키고 진행형은 시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There are four absolute tenses (present, past, present perfect, and future), which express time from the standpoint of the moment in which the speaker is speaking without reference to some other act: and two relative tenses (past perfect and future perfect), which express time relatively to the preceding absolute tenses.

2. 현재와 현재진행형

현재는 단순히 발화시점에서 화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언급한다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도 동작이나 상태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아(in general, all the time or sometimes) 아래 그림과 같이 과거+현재+미래의 수평선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현재진행형은 화자가 발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now, at the time of speaking) 동작이 시작되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연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I'm doing

past now future

(41) Jack **plays** the guitar. (present simple)
but he **is not playing** the guitar now. (present continuous)

(42) It **rains** a lot in winter. (present simple)
Take an umbrella with you. It**'s raining**. (present continuous)

좀 더 성격을 달리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3) I open the cage.
(44) I am opening the cage.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44)는 'What are you doing?' 에 대한 대답이라 볼 수 있고, (43)은 좀 더 드라마틱해서 쓰기에 있어서는 감탄부호 없이 사용되기는 어색할 듯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소위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cognitive verbs)는 현재진행형에 사용될 수 없다.

like, love, want, know, understand, remember, depend, prefer, hate, need, mean, believe, forget, etc.

(45) I'm tired. I **want** to go home.
*I'm tired. I**'m wanting** to go home.
(46) I **don't understand**. What **do** you **mean**?

그러나 모 식품회사의 광고에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인 'love'를 사용해서 'I'm loving it!'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impolite'한 표현으로 이때 'loving'은 'sex'를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아래의 두 문장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47) **Do** you speak English?

(48) **Can** you speak English?

(47)은 보다 공손한 표현으로 과거부터 영어를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 (48)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느냐'는 의심과 나아가 '영어를 사용해봐라'라는 가벼운 명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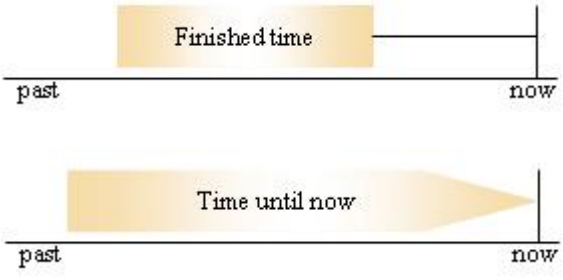
영어학습자들이 현재시제가 단순히 현재시점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현재진행형은 현재시에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다면 이상에서 언급된 이론적 배경과 다음 표 4에 제시된 예문들을 통해 현재와 현재진행형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표 4
현재와 현재시제의 지도 예시문

다음 빈 칸에 현재나 현재진행형의 올바른 형태를 쓰시오.
1. Are you hungry? _____ (you/want) something to eat?
2. Don't put the dictionary away. I _____ (use) it.
3. Don't put the dictionary away. I _____ (need) it.
4. Who is that man? What _____ (he/want)?
5. Who is that man? Why _____ (he/look) at us?
6. Alan says he's 80 years old, but nobody _____ (believe) him.
7. She told me her name, but I _____ (not/remember) it now.
8. I _____ (think) of selling my car. Would you be interested in buying it?
9. I _____ (think) you should sell your car. You _____(not/use) it very often.
10. Air _____ (consist) mainly of nitrogen and oxygen.

3. 과거와 현재완료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시제는 현재와는 무관한 과거의 시점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현재완료는 그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단순히 현재니까 현재완료를 쓴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현재완료는 ‘from past to now’를 나타내고 과거는 ‘finished time’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시점이 분명할 때는 과거를, 과거의 시점이 불분명할 때는 현재완료를 쓰는 것이다.

(49) I’m ready now. I’ve finished my work.
(50) Sue isn’t here. She’s gone out.
(51) I have lost my key.
(52) I lost my key last week.

(49)에서 일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마쳤는지가 불분명하고, (50)도 Sue가 여기에 없고 외출했지만 언제 외출했는지의 시점을 알 수 없으며, (51) 역시 key를 분실했지만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없기에 현재완료를 쓴 것이다. 그러나 (52)는 last week이라는 잃어버린 시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완료가 아닌 과거를 쓴 것이다. 그래서 현재완료를 ‘indefinite past’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Tom lost his key yesterday.’에서 미국영어에서는 ‘Tom lost his key’을 ‘Tom has lost his key.’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미국영어가 영국영어와는 달리 청자를 배려한 정도가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예문들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53) I’ve lost my key. Have you seen it?
I lost my key. Did you see it? (AmE)
(54) Sally isn’t here. She’s gone out.
Sally isn’t here. She went out. (AmE)
(55) I’m not hungry. I’ve just had lunch.
I’m not hungry. I just had lunch. (AmE)
(56) A: What time is Mark leaving?
B: He has already left.
He already left. (AmE)

(57) Have you finished your work yet?
Did you finish your work yet? (AmE)

위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영어에서는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 현재완료 대신 과거형을 쓸 수 있음을 학습자들은 알아야 한다.

다음에는 현재까지의 계속과 현재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현재완료와 과거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한다.

(58) His sister **has been** an invalid all her life.
(59) His sister **was** an invalid all her life.

(58)은 'She is still alive', (59)는 'She is now dead'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60) For generations, Napel **has produced** the world's greatest soldiers.
(61) For generations, Sparta **produced** Greece's greatest warriors.

(60)은 'The nation of Nepal still exists'를, (61)은 'The state of Sparta no longer exists'를 의미한다.

현재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61) Peter **has injured** his ankle.
(62) Peter **injured** his ankle.

(61)은 'His ankle is still bad'를, (62)는 Peter가 자신의 발목을 다쳤지만 현재는 다친 그 시점보다 더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영어에서는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의 불확실한 과거에 대해 현재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완료가 과거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63) Why are you limping?; **Did** you **hurt** your foo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학습자들이 과거와 현재완료의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습득하지 못해서 문장을 이해하거나 영문을 쓰는데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완료가 'from past to now'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는 단순히 'finished time'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영어학습자들이 단순히 과거는 특정한 과거시점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현재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경험, 계속, 완료,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고 있다면, 과거의 시점이 분명할 때는 과거를, 과거의 시점이 불분명할 때는 현재완료를 쓴다는 이론적 설명과 함께 다음 표 5에 제시된 과거와 현재완료의 구별 예문들을 이용해서 지도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5
과거와 현재완료의 지도 예시문

다음 빈 칸에 과거나 현재완료의 올바른 형태를 쓰시오.

1. A: _____(you/ever/be) to Florida?
   B: Yes, we _____ (go) there on holiday two years ago.
   A: _____ (you/have) a good time?
   B: Yes, it _____ (be) great.
2. A: Where's Alan? _____ (you/see) him?
   B: Yes, he _____ (go) out a few minutes ago.
   A: And Rachel?
   B: I don't know. I _____ (not/see) her.
3. Rose works in a factory. She _____ (work) there for six months.
   Before that she _____(be) a waitress in a restaurant. She _____ (work) there for two years, but she _____(not/enjoy) it very much.
4. A: Do you know Martin's sister?
   B: I _____ (see) her a few times, but I _____ (never/speak) to her. _____ (you/ever/speak) to her?
   A: Yes. I _____ (meet) her at a party last week. She's very nice.

4. will 과 be going to

will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사용되고, be going to는 발화 시점에서 이미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미래 표시로 사용된다.





Sue is talking to Helen.
Sue: Let's have a party
Helen: That's a good idea. We'**ll invite** lots of people.
Later that day, Helen meets Dave.
Helen: Sue and I have decided to have a party. We'**re going to invite** lots of people.

위의 대화에서 Helen은 Sue의 말을 들었을 당시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Dave을 만나 말할 때는 이미 Sue에게 제안했었고 이미 초대하기로 현재 이전에 결정을 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will이 아닌 be going to를 쓴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그 차이점은 명확해진다.

(64) Gary phoned while you were out.
OK. I'll call him back.
(65) Gary phoned while you were out.
Yes, I know. I'm going to call him back.

(66) Ann is in hospital.
Oh really? I didn't know. I'll go and visit her.
(67) Ann is in hospital.
Yes, I know. I'm going to visit her this evening.

위 간단한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be going to는 will과는 달리 청자인 경우에 화자가 한 말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말할 때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확실히 그런 동작이 생길 거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be going to를 쓴다.

(68) Look at those black clouds. It'**s going to** rain.
(69) I feel terrible. I think I'**m going to** sick.

(68)의 문장에서 ‘those black clouds’이라는 현재의 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will은 적절하지 않으며, (69)도 ‘I feel terrible.’이라는 현재의 상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be going to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예에서와 같이 will을 쓴다.

(70) Tom **will** probably **get** here at about 8 o’clock.
(71) I think Sarah **will like** the present we bought for her.
(72) These shoes are very well-made. They’**ll last** a long time.

그러나 will과 going to 사이에 별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73) I think the weather **will** be nice this afternoon.
(74) I think the weather **is going to** be nice this afternoon.

will과 be going to는 영어학습자들이 초등영어시기부터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 차이를 구별해서 의사소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를테면 ‘The rock will fall’이라는 어색한 문장을 쓸지도 모른다. 현재에 계획된 상황(예, If I push it)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The rock is going to fall’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will과 be going to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활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된 지도 방법과 아울러 표 6에 제시된 문제중심의 지도 예시문을 통해 학습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미래시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표 6
will 과 be going to 의 지도 예시문

다음 빈 칸에 will 이나 be going to 의 올바른 형태를 쓰시오.

A: Why are you turning on the television?
B: _____ the new. (I / watch)
2 A: Oh, I’ve just realized. I haven’t got any money.
B: Haven’t you? Well, don’t worry. _____ you some. (I / lend)
3 A: I’ve got a headache.
B: Have you? Wait a second and _____ an aspirin for you. (I / get)
4 A: Why are you filing that bucket with water?
B: _____ the car. (I / wash)
5 A: I’ve decided to repaint this room.
B: Oh, have you? What color _____ it? (you / paint)
6 A: Where are you going? Are you going shopping?
B: Yes, _____ something for dinner. (I / buy)
7 A: I don’t know how to use this camera.
B: It’s easy. _____ You. (I / show)

8 A: What would you like to eat?
B: _____ a sandwich, please. (I / have)
9 A: Did you post that letter for me?
B: Oh, I'm sorry. I completely forgot. _____ it now. (I / do)
10 A: The ceiling in this room doesn't look very safe, does it?
B: No, it looks as if _____ down. (it / fall)

IV. 결론 및 제언

동사의 시제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자주 접하는 문법범주이다. 현재시제를 시작으로 과거나 미래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의 시제를 배우게 되는데, 시제의 기능이나 정의는 물론이고 그 분류 기준이 학자들마다 제각기 달라 학습자들은 어려운 문법범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에 대해 학습자들의 관심이 낮아져 시제에 관한 많은 오류를 범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Im, Byung-Bin, 2000).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시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도록 효율적인 지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관계를 언어학적으로 규정하는 시제의 기능과 분류에 대해 고찰하고, 시제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과 용법을 학교문법과 의사소통기능 측면에서 재조명해보았다. 또한 각 절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단위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지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제의 역할과 용법이 학교문법 지도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학습자들이 시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남기심. (1977).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어문학 연구 신서. 서울: 탑출판사.
정희자. (1988). 영어에서 시제의 선택 조건. *영어영문학, 34*(4), 745-765.
조성식. (1974). *영어문법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Allen, R. L. (1982). *The verb system of present-day American English*. Berlin: Mouton Co.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rme, G. O. (1931). *Syntax*. Boston: D.C. Heath & Company.
Costa, R. (1972). "Sequences of tense in that-clause", in Papers from the eigh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46-47.

Im, Byung-Bin. (2000). Effective learning tasks and activities to improve EFL listening comprehens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6*(2), 1-24.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Kiparsky, P., & C. Kiparsky. (Eds.). (1971). "*Fact*" *in Steninberg and Jacobovi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ustma, H. (1926).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Groningen: P. Noordhoff.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tartvik, F. (1973).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tartvik, F.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London: Macmillan.

Smith, C. S. (1978).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2*, 66-67.

Sweet, H. (1898). *A new English grammar Pt. 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강문구
온양고등학교
336-01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61
Tel: 041-541-3688
E-mail: kangmunkoo@hanmail.net

Received in Jul., 2007
Reviewed in Aug.,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 2007